

의원개설 양상의 변동 추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 병 순 · 문 옥 룬

=Abstract=

Changes and Trends in the Newly Established Clinics in Korea

Byung Soon Choi, Ok Ryun Moon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medical insurance came into effect in Korea, health care system has undergone tremendous changes. Changing patterns of newly established clinics is one of them. To investigate changes and trends, a total of 10,184 clinics which were newly established from 1981 to 1990 were analysed. Data were obtained from the file of contracting medical facilities of the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 Societies.

The proportion of newly established clinics has increased gradually, so that they amount to 13% of the total medical facilities in Korea. Meanwhile, the number of newly established medium-size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have decreased. The number of newly established clinics per 100,000 populations has increased in the all areas, but the rate of increase has decreased in the cities except in 6 major cities in 1990. The rate of increase in newly established clinics surpasses that of population increase.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trend of young physicians' early driving into their solo medical practice than before. This indicates chance of the medical specialty training nowadays toughen due to the limited openings in residency programs. However, the sex ratio of physicians at newly established clinics has not changed.

The decreasing tendency to open medical practice without beds and the increasing size of clinics are found in this study(The size has been measured in terms of medical manpower, of beds, and of medical equipment in this study). Two thirds of general practitioners have opened their clinics without beds, although such trend has been less in the case of specialists. All three indicators show increasing size, especially in the case of rural clinics. However, among them, the number of medical equipments has increased most significantly from 8.9 items in 1981 to 12.9 in 1990.

Key words: *newly established clinics, patterns of practice, trends during 1980s*

I.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용방식의 의료보험이 도입된 후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그리고 1989년에는 도시 지역의료보험을 포함하는 전국민의료보험으로 그 대상이 확장되어 왔다(문옥륜 등, 1990).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진료권의 설정을 통한 의료이용의 지역화, 규모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분, 후송 및 회송체계의 2단계 진료절차를 통한 의료이용의 단계화를 내용으로 국민의 의료이용의 편의,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보험재정의 안정, 그리고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한달선, 1984; 유승흠, 1988; 김한중, 1991).

그러나 1990년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89.8%, 전체 병상의 85.5%, 전체 의료인력의 91.7%가 도시지역에 편재되어 있어(보건사회부, 1991) 의료기관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 각 수준 의료기관간의 경쟁적인 입장과 기능분담의 미비, 공공의료부문의 취약으로 인하여 전국민의료보험하에서의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에 힘든 면이 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는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의원)이 지역적으로 균등히 분포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의료체계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김일순과 유승흠, 1981).

의료보험의 영향은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져(양봉민, 1989) 피보험대상자 1인당 수진율이 1981년의 2.210회에서 1990년의 4.201회로 1.9배가 증가하였다(의료보험관리공단, 1991). 이러한 수진율의 증가는 의료보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도 가능하지만 의원수가 늘어나면서 의료공급자에 의한 수요 유발

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래로 의과대학수 및 의과대학 정원의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져 의사면허 취득자수가 1976년에서 1985년 사이에는 매년 1,000~1,600여명, 그리고 1986년 이후에는 매년 2,400~3,000여명이 배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전국민의료보험 및 의료전달체계의 시행과 의사의 양산 등 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즉, 기존 의원이 폐쇄되고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 등 기존 의원의 재배치 뿐만 아니라 새로이 개설되는 의원들도 변화하는 의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규개설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별 분포, 신규개설자의 연령, 전문의 보유 여부 및 그 종류, 의원의 규모 등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의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나 통계는 일정 시점에서 기존의 전체 의원에 대하여 변수별 분포를 파악하는데 치중하여 왔고, 또한 그 분포를 야기시킨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개설되는 의원에 국한하여 의원의 신규개설 양상이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료보험이 확대되고 의료전달체계가 의원의 신규개설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규명하기는 힘들더라도 1989년에 시행된 이들 제도가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의 발판을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개인이 신규로 개설한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부속의원 등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 연구자료

연구대상 요양취급기관들이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 기초한 전산자료를 사용하였다(보건사회부, 1990).

3. 연구방법

1)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새롭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하며, 개설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개설자가 개설일자를 달리하여 동일장소 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새롭게 개설한 의료기관은 각각 신규개설 의료기관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신규개설자는 신규개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를 말한다.

전문과목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과목을 말하며, 장비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상의 주요 의료장비에 대하여 종류와 무관하게 그 총수를 뜻한다. 인구증가율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10년간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변동은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뜻한다.

2) 분석방법

전체 의료기관에서 신규개설 의원이 차지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의 신규개설 의원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지역에 따른 분포를 파악하고자 15개 시·도별과 6대도시, 기타 시지역, 군지역별로 신규개설 의원의 분포를 살펴보고, 신규개설자의 특성(연령, 성, 전문의 자격)에 따른 분포와 신규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의 표방 정도를 살펴보았다. 의사면허 취득후 의원을 신규개설할 때까지의 기간을 살펴보고, 신규개설 의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규개설 당시의 병상보유 여부 및 병상수, 종사하는 비의사인력, 장비수 등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1. 신규개설 의료기관

표 1은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본 신규개설 의료기관의 분포이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신규로 개설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모두 10,851개이다. 이는 연평균 1,085개씩 증가한 셈이 된다. 이 중 의원은 198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총 신규개설 의료기관 수의 9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의료보험이 시행된 1980년대 초반기보다 후반기에 신규개설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규개설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기존의 의료기관과 신규개설 의료기관을 합한 당해년도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낮아지고, 의원은 1986년에 1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지다가 그 후 감소하였으며 1990년에 13.0%로 다시 높아졌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의 전체 신규개설 의료기관에 대하여 연도별 신규개설 의료기관의 점유율을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살펴보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1980년대 초에 많이 개설되었지만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많이 개설되어 10년간의 신규개설 의원 전체의 12.3%가 1989년에, 그리고 14.6%가 1990년에 신규로 개설되었다.

2. 지역에 따른 분포

1) 시·도별 분포

시·도별 신규개설 의원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대도시는 1990년에 10년전에 비하여 당해년도 전국 신규개설 의원에 대한 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감소하고,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대도시 주위의 지역에서는 최근에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은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

표 1. 종별 신규개설 의료기관의 분포

연도	신규개설 의료기관 수(%)			신규개설 의료기관의 점유율(%) ¹⁾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비(%) ²⁾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1981	717 (0.02)	36 (0.05)	17 (99.93)	7.0	7.7	8.5	10.3	0.5	0.2
1982	648 (0.04)	46 (0.06)	31 (99.90)	6.4	9.8	15.7	9.0	0.6	0.4
1983	798 (0.05)	64 (0.07)	47 (99.88)	7.8	13.7	23.7	10.4	0.8	0.6
1984	858 (0.02)	68 (0.07)	22 (99.91)	8.4	14.5	11.1	10.6	0.8	0.3
1985	995 (0.02)	45 (0.04)	19 (99.94)	9.8	9.6	9.5	11.6	0.5	0.2
1986	1,181 (0.01)	35 (0.03)	8 (99.96)	11.6	7.5	4.0	13.0	0.4	0.1
1987	1,116 (0.01)	35 (0.03)	16 (99.96)	11.0	7.5	8.0	11.6	0.4	0.2
1988	1,133 (0.01)	62 (0.05)	12 (99.94)	11.1	13.2	6.0	11.2	0.6	0.1
1989	1,249 (0.01)	35 (0.03)	17 (99.96)	12.3	7.5	8.5	11.6	0.3	0.2
1990	1,489 (0.01)	42 (0.03)	10 (99.96)	14.6	9.0	5.0	13.0	0.4	0.1

주: 1) 1981~1990의 10년간 신규개설 의료기관 총수에 대한 점유율

2) 전체의료기관은 당해년도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각각의 총수

였다. 인천은 대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하였는데 서울주위라는 점에서 경기와 같이 인식할 수 있겠다.

지난 10년간의 신규개설 의원을 연도별로 시·도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모든 시·도에서 최근에 올수록 더욱 많이 개설되고 있다. 특히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은 1981년에 비하여 1990년에 2배이상 의원이 개설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100,000명당 신규개설 의원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은데 1985년에는 광주, 전북, 제주를 제외하고 1981년보다 증가하였으며,

1990년에는 대전,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1985년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1년에 비하여 1990년에는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증가하였고 전국적으로 보면 1981년에 인구 100,000명당 신규개설 의원수가 1.92, 1985년에는 2.46, 1990년에는 3.42로 증가하고 있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의 신규개설 의원의 증가율을 인구증가율과 비교하여 보면 표 4와 같은데 모든 시·도에서 신규개설 의원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인구가 감소하였는데도 의원은 많이 늘어났고, 경기, 충남, 전남에서는 의원

표 2. 시, 도별 신규개설 의원의 분포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합 계
서울	231	200	270	301	289	354	345	351	365	403	3,109
부산	76	68	71	88	96	111	109	101	117	113	950
인천	30	16	37	37	47	49	58	48	49	71	442
대구	35	33	37	50	52	27	37	44	42	63	420
광주	27	18	25	14	21	26	22	22	48	47	270
대전	20	12	30	32	35	48	39	20	36	33	305
경기	65	106	120	100	162	172	168	202	215	282	1,592
강원	47	37	35	36	49	79	50	57	38	52	480
충북	20	21	11	20	26	47	32	31	35	43	286
충남	20	16	21	24	35	56	48	40	48	57	365
전북	41	17	17	27	31	41	42	32	60	58	366
전남	17	19	13	23	29	33	23	30	39	66	292
경북	30	27	24	41	40	48	52	58	42	65	427
경남	46	50	75	58	71	77	81	84	102	118	762
제주	12	8	12	7	12	13	10	13	13	18	108
전국	717	648	798	858	995	1,181	1,116	1,133	1,249	1,489	10,084

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의 차이가 많았다. 전국적으로 10년간의 인구증가율은 16.3%, 신규개설 의원의 증가율은 107.7%이었다.

2) 시·군별 분포

6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및 시와 군 지역으로 나누어 신규개설 의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6대도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원의 신규개설이 1981년의 58.4%에서 1990년의 49.0%로 감소하였다. 시지역은 19.4%에서 31.0%로 증가하고, 군지역은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모든 지역에서 의원이 많이 개설되고 있지만 특히 시지역에서 뚜렷하여 1981년에는 10년간의 전체 신규개설 의원이 4.8%가 개설된데 비하여 1990년에는 16.1%나 개설되었다.

표 6은 시·군별 인구 100,000명당 신규개설 의원의 수로 6대도시, 시·군지역 모두에서 인구

100,000명당 신규개설 의원수가 증가하였는데, 시지역에서는 1990년에 그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되었고 군지역에서는 증가속도가 크게 신장되었다.

표 7을 보면 시지역에서 인구증가에 비하여 의원의 증가가 뚜렷한데 비하여 군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였는데도 의원이 증가하고 있다. 6대도시지역도 인구증가에 비하여 의원의 증가가 많았다.

3. 신규개설자의 특성에 따른 분포

표 8에서 신규개설자를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보면 1990년에 20~29세와 30~39세가 합해서 74.7%로 1981년의 57.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9세가 1990년에는 1981년보다 2.4배나 증가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얼마 안있어 바로 의원을 개설하는 의사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는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표 3. 시·도별 인구 100,000명당 신규개설 의원의 수

	1981	1985	1990
서울	2.76	3.00	3.79
부산	2.41	2.73	2.98
인천	2.77	3.39	3.90
대구	2.18	2.56	2.83
광주	3.71	2.32	4.11
대전	3.07	4.04	3.11
경기	1.69	4.75	4.58
강원	2.62	2.84	3.27
충북	1.40	1.87	3.04
충남	0.87	1.64	2.81
전북	1.79	1.41	2.80
전남	0.56	1.02	2.62
경북	0.90	1.33	2.27
경남	1.38	2.02	3.21
제주	2.59	2.46	3.50
전국	1.92	2.46	3.42

다. 즉, 남자의사와 여자의사의 신규개설 비율은 지난 10년간 87% 대 13%의 수준이다.

표 9에서 전문의 신규개설자가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1987년까지는 자격을 취득한 전문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표방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1987년에 83.4%이었으나 그 후로는 낮아져서 1990년에는 71.2%로 1981년의 76.3%보다도 낮아졌다. 다시 말해서 전문의인 신규개설자가 전문과목을 전문과목으로써 표방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전문의 신규개설자의 약 20~30%에 이르고 있다.

4. 의사면허 취득후 신규개설까지의 기간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개설시기까지의 기간을 표 10에서 보면 일반의의 경우 1990년에는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6.

표 4. 1981~1990의 10년간 시·도별 인구증가율 및 신규개설 의원의 증가율(%)

	인구증가율	신규개설 의원의 증가율
서울	27.1	74.5
부산	20.2	48.7
인천	67.8	136.7
대구	38.9	80.0
광주	57.3	74.1
대전	63.0	65.0
경기	59.9	333.8
강원	-11.1	10.6
충북	-0.7	115.0
충남	-12.0	185.0
전북	-9.5	41.5
전남	-17.4	288.2
경북	-14.4	116.7
경남	10.8	156.5
제주	11.2	50.0
전국	16.3	107.7

2%, 2~3년이 17.1%로 1981년의 각각 2.0%와 4.9%에 비해 약 3-4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에 을수록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바로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전문의에서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내(전문의자격 취득후 1년 이내)에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1981년의 1.9%에서 1990년의 3.1%로 증가하였으나 면허를 취득하고 6~7년(전문의자격 취득 후 2~3년)만에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는 1981년의 8.7%에서 1990년에는 6.8%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고 바로 의원을 개설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의원을 개설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5. 의원 신규개설자의 일반의·전문의별 분포

신규개설자의 일반의·전문의별 분포를 표 11에

표 5. 시·군별 신규개설 의원의 분포

연도	신규개설 의원의 수			신규개설 의원의 점유율(%) ¹⁾		
	6대도시	시	군	6대도시	시	군
1981	419(58.4)	139(19.4)	159(22.2)	7.6	4.8	8.8
1982	347(53.5)	182(28.1)	119(18.4)	6.3	6.3	6.6
1983	471(59.1)	219(27.4)	108(13.5)	8.6	7.6	6.0
1984	523(61.0)	208(24.2)	127(14.8)	9.5	7.2	7.0
1985	541(54.4)	291(29.2)	163(16.4)	9.8	10.1	9.0
1986	618(52.3)	334(28.3)	229(19.4)	11.2	11.6	12.7
1987	610(54.7)	323(28.9)	183(16.4)	11.1	11.3	10.1
1988	588(51.9)	329(29.0)	216(19.1)	10.7	11.5	11.9
1989	657(52.6)	386(30.9)	206(16.5)	11.9	13.5	11.4
1990	730(49.0)	461(31.0)	298(20.0)	13.3	16.1	16.5
합계	5,504(54.0)	2,872(28.2)	1,808(17.8)	100.0	100.0	100.0

주: 1) 1981~1990의 10년간 신규개설 의원 총수에 대한 점유율

표 6. 시·군별 인구 100,000명당 신규개설 의원의 수

	1981	1985	1990
6대도시	2.69	2.95	3.53
시	2.38	3.59	3.93
군	1.06	1.17	2.68
전 국	1.92	2.46	3.42

표 7. 1981~1990의 10년간 시·군별 인구증가율 및 신규개설 의원의 증가율(%)

	인구증가율	신규개설의원의 증가율
6대도시	32.6	74.2
시	100.6	231.7
군	-25.9	87.4
전 국	16.3	107.7

서 보면 의원의 신규개설자 중 전문의의 비율이 1981년의 57.6%에서 급격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와서 감소하여 1990년에는 65.1%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개설자가 일반의인 경우에는 6대도시, 시·군 모두에서 의원을 신규로 개설하는 전체 일반의 중 신규개설하는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그 변동이 심하여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문의인 경우는 6대도시에서는 많이 감소하였고 시지역에서는 증가하였으며 군지역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의에서는 6대도시,

군, 시의 순서로 의원을 많이 개설하는 반면, 전문의들은 6대도시, 시, 군의 순서로 도시지역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의 경우 군지역에 개업하는 일반의의 수는 전문의의 수보다 2배나 많다.

이를 인구 100,000명당으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은데 일반의는 6대도시, 시, 군지역 모두에서 1981년에 비하여 1985년에 감소하였으나 1990년에는 증가하였고 특히 군지역에서 많이 증가하였다. 전문의는 모든 지역에서 1985년과 1990년에 계속 증가하였으나 6대도시와 시지역에서 1990년

표 8. 의원 신규개설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연 도	연령					성	
	20~29	30~39	40~49	50~59	60~	남자	여자
1981	24	327	143	72	42	523	85
1982	24	345	128	65	55	539	78
1983	33	468	142	65	65	672	101
1984	46	527	122	73	69	728	109
1985	31	635	131	90	83	824	146
1986	62	738	153	105	103	1,008	153
1987	63	670	140	110	119	979	123
1988	84	693	149	90	107	988	135
1989	110	766	159	83	116	1,085	149
1990	135	965	185	88	100	1,283	190

주: 연령 미상을 제외하였으므로 합계가 신규개설 의원수와 다름

표 9. 의원 신규개설자(전문의)의 취득한 전문과목과 표방하는 전문과목의 일치여부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일치	315 (76.3)	348 (80.6)	472 (81.4)	516 (82.3)	598 (82.8)	696 (81.0)	647 (83.4)	612 (79.7)	696 (79.9)	691 (71.2)
불일치	98 (23.7)	84 (19.4)	108 (18.6)	111 (17.7)	124 (17.2)	163 (19.0)	129 (16.6)	156 (20.3)	175 (20.1)	279 (29.8)
합계	413 (100.0)	432 (100.0)	580 (100.0)	627 (100.0)	722 (100.0)	859 (100.0)	776 (100.0)	768 (100.0)	871 (100.0)	970 (100.0)

에 그 증가가 둔화되었다. 이처럼 전문의의 도시 선호경향이 둔화되는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각각 2배씩 크게 증가율이 신장되고 있다. 그러나 도·농간의 개원 전문의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즉, 1990년의 경우 도·농간의 인구 10만명당 신규개설 전문의 수의 격차는 4.67명이나 된다.

표 13에서 지난 10년간의 인구증가율과 일반의 및 전문의 신규개설자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일반의는 시지역에서 인구증가율을 밀들고, 전문의는 모든 지역에서 인구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지역은 인구가 감소(-25.9%) 하는데도 불구하고 1981년에 비해 1990년에 216.

1%로 2배이상 의원의 신규개설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6. 신규개설의원 규모의 변동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규모는 종사인력의 수, 병상수 및 장비수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신규개설 의원을 전체로 볼때 병상과 인력의 의원당 평균치는 10년간 매우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비의 평균치는 다소 급격하게 매년 증가되어 왔다(표 14). 1990년도의 신규개설의원은 과거 10년전보다 병상이 0.5개, 인력이 0.8명, 장비가 4개 증가하

표 10. 의원 신규개설자의 의사면허 취득후 개설까지의 기간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일반의										
< 1년	6 (2.0)	4 (1.9)	2 (0.9)	6 (2.6)	2 (0.7)	31 (9.6)	23 (6.8)	23 (6.3)	30 (7.9)	32 (6.2)
1~2년	15 (4.9)	8 (3.7)	13 (6.0)	16 (6.9)	13 (4.6)	20 (6.2)	73 (21.5)	65 (17.8)	48 (12.7)	89 (17.1)
3~4년	22 (7.2)	23 (10.6)	17 (7.8)	23 (10.0)	10 (3.8)	26 (8.1)	23 (6.8)	50 (13.7)	86 (22.8)	108 (20.8)
5~6년	19 (6.3)	18 (8.3)	16 (7.3)	16 (6.9)	19 (7.0)	20 (6.2)	22 (6.5)	21 (5.8)	25 (6.6)	43 (8.3)
7년 <=	242 (79.6)	163 (75.5)	170 (78.0)	170 (73.6)	229 (83.9)	225 (69.9)	199 (58.5)	206 (56.4)	189 (50.0)	247 (47.6)
소계	304 (100.0)	216 (100.0)	218 (100.0)	231 (100.0)	273 (100.0)	322 (100.0)	340 (100.0)	365 (100.0)	378 (100.0)	519 (100.0)
전문의										
< 1년	0	0	0	0	0	0	0	0	0	0
1~2년	0	0	0	0	0	0	0	0	0	0
3~4년	8 (1.9)	7 (1.6)	28 (4.8)	32 (5.1)	23 (3.2)	24 (2.8)	18 (2.3)	16 (2.1)	27 (3.1)	30 (3.1)
5~6년	36 (8.7)	37 (8.6)	42 (7.3)	44 (7.0)	43 (6.0)	72 (8.4)	57 (7.4)	59 (7.7)	64 (7.3)	66 (6.8)
7년 <=	369 (89.4)	388 (89.8)	510 (87.9)	551 (87.9)	656 (90.8)	763 (88.8)	701 (90.3)	693 (90.2)	780 (89.6)	874 (90.1)
소계	413 (100.0)	432 (100.0)	580 (100.0)	627 (100.0)	722 (100.0)	859 (100.0)	776 (100.0)	768 (100.0)	871 (100.0)	970 (100.0)

였다.

1) 병 상

일반의가 신규개설자인 의원(일반의원)과 전문의가 신규개설자인 의원(전문의원)을 6대도시, 시 군으로 나누어 신규개설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6대도시와 시지역에서는 일반의원, 전문의원 모두 의원을 신규개설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으나, 군지역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병상을 보유한 채 의원을 신규

개설하는 경우 그 병상수의 평균치를 보면 일반의원에서는 6대도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 9.1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시지역에서는 10.4병상, 군지역에서는 7.3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의원인 경우는 6대도시와 시지역에서 최근에 약간씩 증가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고 군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1990년에 6대도시 9.9병상, 시지역 11.6병상, 군지역 14.9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도시지역에서는 의원당 약 1병상정도 증가된 반면, 군지역

표 11. 시·군별 의원 신규개설자의 일반의·전문의별 분포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일반의	304 (42.4) ¹⁾	216 (33.3)	218 (27.3)	231 (26.9)	273 (27.4)	322 (27.3)	340 (30.5)	365 (32.2)	378 (30.3)	519 (34.9)
6대도시	126 <41.4> ¹⁾	93 <43.1>	97 <44.5>	109 <47.2>	114 <41.8>	133 <41.3>	176 <51.8>	156 <42.7>	168 <44.4>	219 <42.2>
시	50 <16.5>	45 <20.8>	55 <25.2>	33 <14.3>	57 <20.9>	56 <17.4>	53 <15.6>	81 <22.2>	92 <24.3>	100 <19.3>
군	128 <42.1>	78 <36.1>	66 <30.3>	89 <38.5>	102 <37.3>	133 <41.3>	111 <32.6>	128 <35.1>	118 <31.2>	200 <38.5>
전문의	413 (57.6)	432 (66.7)	580 (72.7)	627 (73.1)	722 (72.6)	859 (72.7)	776 (69.5)	768 (67.8)	871 (69.7)	970 (65.1)
6대도시	293 <71.0>	254 <58.8>	374 <64.5>	414 <66.0>	427 <59.1>	485 <56.4>	434 <55.9>	432 <56.2>	489 <56.1>	511 <52.7>
시	89 <21.5>	137 <31.7>	164 <28.3>	175 <27.9>	234 <32.4>	278 <32.4>	270 <34.8>	248 <32.3>	294 <33.8>	361 <37.2>
군	31 <7.5>	41 <9.5>	42 <7.2>	38 <6.1>	61 <8.5>	96 <11.2>	72 <9.3>	88 <11.5>	88 <10.1>	98 <10.1>
합 계	717	648	798	858	995	1,181	1,116	1,133	1,249	1,489

주: 1) (): 신규개설자 중 일반의·전문의별 비
 2) < >: 일반의·전문의 각각에서의 비

표 12. 시·군별 인구 100,000명당 신규개설자의 일반의, 전문의별 분포

	1981	1985	1990
일반의			
6대도시	0.81	0.62	1.06
시	0.73	0.70	0.85
군	0.85	0.73	1.80
전 국	0.81	0.68	1.19
전문의			
6대도시	1.88	2.33	2.47
시	1.30	2.89	3.08
군	0.21	0.44	0.88
전 국	1.11	1.78	2.23
전국	1.92	2.46	3.42

표 13. 1981~1990년간 시·군별 인구증가율 및 신규개설 의원의 증가율(%)

	인구증가율	일반의원의 증가율 ¹⁾	전문의원의 증가율 ²⁾
6대도시	32.6	73.8	74.4
시	100.6	100.0	305.6
군	-25.9	56.3	216.1
전 국	16.3	70.7	134.9

주: 1) 일반의원: 일반의가 신규개설자인 의원
 2) 전문의원: 전문의가 신규개설자인 의원

표 14. 신규개설 의원의 병상, 인력, 장비의 수

연도	병상		인력		장비	
	총수	평균	총수	평균	총수	평균
1981	2,657	3.71	3,476	4.85	6,349	8.86
1982	2,720	4.20	3,257	5.03	6,444	9.95
1983	3,297	4.13	4,782	5.99	7,966	9.98
1984	3,134	3.65	4,399	5.13	9,070	10.57
1985	4,340	4.36	6,019	6.05	11,502	11.56
1986	5,582	4.73	6,111	5.17	13,908	11.78
1987	4,985	4.47	7,285	6.53	13,448	12.05
1988	4,917	4.34	6,173	5.45	14,551	12.84
1989	4,969	3.98	6,856	5.49	16,188	12.96
1990	6,285	4.22	8,372	5.62	19,243	12.92

에서는 1981년에 비해 1990년에 5.5병상이나 증가하였다.

2) 비의사인력

표 16에서 비의사인력을 살펴보면 신규개설 일반의원은 6대도시에서 의료기사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시지역에서는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많이 증가했으며, 군지역에서는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가 많이 증가하였다. 전문의원의 경우에는 6대도시와 시지역에서 의료기사가 많이 증가하였고, 군지역에서는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증가가 가장 현저하다. 일반의원과 전문의원을 비교하면 6대도시에서는 간호사, 의료기사, 원무요원은 전문의원보다 일반의원에서 많고 간호조무사는 전문의원에서 더 많다. 시지역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전문의원에 더 많고 의료기사와 원무요원은 일반의원에 더 많다. 군지역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원무요원 모두가 전문의원에서 더 많았다.

표 15-1. 시·군별 병상보유 여부 및 병상수 (6대도시)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일반의원	126	93	97	109	114	133	176	156	168	219
미보유										
	(57.1)	(45.2)	(52.6)	(48.6)	(57.9)	(51.9)	(61.4)	(58.3)	(60.1)	(66.2)
보유	54	51	46	56	48	64	68	65	67	74
	(42.9)	(54.8)	(47.4)	(51.4)	(42.1)	(48.1)	(38.6)	(41.7)	(39.9)	(33.8)
병상수	292	346	276	289	358	501	519	605	528	675
평균 ¹⁾	5.4	6.8	6.0	5.2	7.5	7.8	7.6	9.3	7.9	9.1
전문의원	293	254	374	414	427	485	434	432	489	511
미보유	180	159	225	258	243	273	253	265	322	329
	(61.4)	(62.6)	(60.2)	(62.3)	(56.9)	(56.3)	(58.3)	(61.3)	(65.8)	(64.4)
보유	113	95	149	156	184	212	181	167	167	182
	(38.6)	(37.4)	(39.8)	(37.7)	(43.1)	(43.7)	(41.7)	(38.7)	(34.2)	(35.6)
병상수	973	762	1,392	1,297	1,680	1,933	1,746	1,681	1,544	1,802
평균	8.6	8.0	9.3	8.3	9.1	9.1	9.6	10.1	9.2	9.9
의원수	419	347	471	523	541	618	610	588	657	730

주: 1) 평균은 병상을 보유한 의원의 평균 병상수

표 15-2. 시·군별 병상보유 여부 및 병상수 (시)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일반의원	50	45	55	33	57	56	53	81	92	100
미보유	33	12	21	16	29	28	30	41	58	63
	(66.0)	(26.7)	(38.2)	(48.5)	(50.9)	(50.0)	(56.6)	(50.6)	(63.0)	(63.0)
보유	17	33	34	17	28	28	23	40	34	37
	(34.0)	(73.3)	(61.8)	(51.5)	(49.1)	(50.0)	(43.4)	(49.4)	(37.0)	(37.0)
병상수	146	210	283	115	228	196	183	308	300	383
평균	8.6	6.4	8.3	6.8	8.1	7.0	8.0	7.7	8.8	10.4
전문의원	89	137	164	175	234	278	270	248	294	361
미보유	50	60	97	88	123	155	132	138	165	216
	(56.2)	(43.8)	(59.1)	(50.3)	(52.6)	(55.8)	(48.9)	(55.6)	(56.1)	(59.8)
보유	39	77	67	87	111	123	138	110	129	145
	(43.8)	(56.2)	(40.9)	(49.7)	(47.4)	(44.2)	(51.1)	(44.4)	(43.9)	(40.2)
병상수	845	778	677	793	1,263	1,430	1,492	1,169	1,472	1,681
평균	21.7	10.1	10.1	9.1	11.4	11.6	10.8	10.6	11.4	11.6
의원수	139	182	219	208	291	334	323	329	386	461

표 15-3. 시·군별 병상보유 여부 및 병상수 (군)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일반의원	128	78	66	89	102	133	111	128	118	200
미보유	97	36	23	36	57	52	43	58	45	86
	(75.8)	(46.2)	(34.8)	(40.4)	(55.9)	(39.1)	(38.7)	(45.3)	(38.1)	(43.0)
보유	31	42	43	53	45	81	68	70	73	114
	(24.2)	(53.8)	(65.2)	(59.6)	(44.1)	(60.9)	(61.3)	(54.7)	(61.9)	(57.0)
병상수	242	375	420	383	340	731	565	526	573	837
평균	7.8	8.9	9.8	7.2	7.6	9.0	8.3	7.5	7.8	7.3
전문의원	31	41	42	38	61	96	72	88	88	98
미보유	14	14	18	9	15	21	26	32	40	37
	(45.2)	(34.1)	(42.9)	(23.7)	(24.6)	(21.9)	(36.1)	(36.4)	(45.5)	(37.8)
보유	17	27	24	29	46	75	46	56	48	61
	(54.8)	(65.9)	(57.1)	(76.3)	(75.4)	(78.1)	(63.9)	(63.6)	(54.5)	(62.2)
병상수	159	249	249	257	471	791	480	628	552	907
평균	9.4	9.2	10.4	8.9	10.2	10.5	10.4	11.2	11.5	14.9
의원수	159	119	108	127	163	229	183	216	206	298

표 16. 시·군별 신규개설 의원의 비의사 인력의 평균치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6대도시																				
간호사 ¹⁾	0.37	0.12	0.39	0.17	0.28	0.28	0.33	0.16	0.25	0.21	0.30	0.24	0.30	0.25	0.37	0.29	0.40	0.43	0.46	0.37
조무사	1.87	2.46	2.08	2.30	2.10	2.33	2.02	2.33	1.94	2.42	1.74	2.33	1.78	2.26	1.88	2.28	1.70	2.03	1.78	2.00
의료기사 ²⁾	0.32	1.77	0.84	0.52	0.73	1.60	0.87	0.67	0.76	0.74	1.11	0.80	0.78	1.29	1.00	1.75	2.38	1.44	2.32	1.14
원무요원 ³⁾	0.37	0.49	0.87	0.36	0.75	0.59	0.75	0.46	0.66	0.56	0.59	0.56	0.48	1.36	0.49	0.49	0.71	0.47	0.59	0.47
의원수	126	293	93	254	97	374	109	414	114	427	133	485	176	434	156	432	168	489	219	511
시																				
간호사	0.16	0.49	0.29	0.38	0.22	0.29	0.27	0.29	0.47	0.42	0.41	0.40	0.32	0.62	0.52	0.54	0.66	0.68	0.61	0.68
조무사	2.62	3.03	2.44	3.00	2.49	2.70	2.61	2.91	2.51	2.79	2.50	2.88	2.13	2.78	1.89	2.36	1.80	2.23	2.09	2.12
의료기사	0.56	1.58	1.16	0.77	0.73	0.67	0.94	0.86	1.12	0.87	1.43	0.81	0.92	1.13	0.99	1.15	1.36	1.26	1.31	1.17
원무요원	1.08	1.18	1.04	0.76	0.80	0.61	1.30	0.79	1.05	0.72	1.13	0.66	0.72	0.80	0.73	0.69	0.77	0.77	0.83	0.65
의원수	50	89	45	137	55	164	33	175	57	234	56	278	53	270	81	248	92	294	100	361
군																				
간호사	0.16	0.42	0.26	0.24	0.27	0.36	0.20	0.32	0.24	0.26	0.17	0.40	0.28	0.54	0.48	0.68	0.45	0.70	0.45	0.87
조무사	1.17	2.45	1.77	2.93	2.33	3.10	2.22	2.79	2.21	2.85	2.38	2.93	2.29	2.69	2.30	2.43	1.98	2.18	1.91	2.32
의료기사	0.21	1.03	0.41	0.68	0.48	1.14	0.52	1.29	0.47	1.18	0.68	1.32	0.94	1.40	1.25	1.73	1.48	1.67	1.56	2.01
원무요원	0.40	0.97	0.87	1.00	0.91	1.17	0.96	1.13	0.67	1.00	0.87	1.06	0.88	1.01	0.95	1.10	0.84	0.84	0.84	0.98
의원수	128	31	78	41	66	42	89	38	102	61	133	96	111	72	128	88	118	88	200	98

주: 1) 간호사: 간호사, 조산사
 2)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3) 원무요원: 원무행정요원, 의무기록사, 의료보험관리사

3) 장 비

표 17에서 장비를 살펴보면 일반의원의 경우에는 6대도시, 시, 군지역 모두에서 신규개설 의원당 장비의 가지수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올수록 군, 시, 6대도시의 순서로 장비가 많았다. 전문의원의 경우에는 6대도시와 군지역에서는 증가하지만 시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군, 시, 6대도시의 순서로 장비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신규개설의원이 도시지역의 신규개설의원보다 보유장비수가 많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IV. 고 찰

신규개설된 의원, 병원, 종합의원이 당해년도 전체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볼 때 1980년대 초기보다 후기에 신규개설 병원과 종합병원의 증가추세가 둔화된 것은 의료보험이 도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 초에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병원과 종합병원

표 17. 시·군별 신규개설 의원의 장비의 평균치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일반의원										
6대도시	7.0	8.9	8.7	10.0	11.3	11.5	10.8	11.7	12.5	12.2
시	8.7	11.5	11.0	10.8	13.9	13.1	11.5	12.1	12.7	12.4
군	5.4	8.4	9.8	10.7	10.3	12.4	13.8	14.7	15.5	15.9
전문의원										
6대도시	9.9	9.1	10.0	9.7	10.9	11.1	11.3	11.9	11.4	12.2
시	12.4	11.5	9.7	11.8	11.7	11.1	12.8	12.9	13.4	11.7
군	13.4	13.1	13.5	15.6	16.0	15.6	14.8	17.2	17.8	17.4

이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당시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린 것에 대한 반응일 수 있겠다.

1980년대 후반기에는 의료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신규개설이 줄어드는 것은 이미 병원과 종합병원이 일정수준 개설된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보험이 정착되면서 기존의 병원과 종합병원들이 경쟁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새로이 이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점차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이러한 양상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동안 신규개설의원이 전체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가 감소된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아 물론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종별로 신규개설된 전체 의료기관수에 대하여 매년 신규개설된 의료기관의 점유율을 보면 더욱 확실해지는데 종합병원과 병원은 1980년대 초에 훨씬 더 많이 개설되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의료기관에 대한 신규개설의원의 비가 1990년에 다시 높아지고 연도별 점유율이 최근에 증가하여 1989년에 12.3%, 1990년에 14.6%나 되는 것은 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개원시 투자소요액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1989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의원이 적절하게 반응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매년 2,000~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서, 이러한 의사수의 양산도 의원의 신규개설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지만 그 영향의 정확한 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적조사가 필요하겠다.

연도별 신규개설 의원중에서 대도시에서 신규개설되는 의원의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대도시 주위의 지역에서는 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및 최근에 새로이 직할시로 승격된 대도시의 주위지역에서는 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이미 의원이 많이 있어 신규개설의 여지가 적지만 직할시로 승격된 대도시 주위지역에서는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겨냥한 의원이 새로이 많이 개설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6대도시, 시, 군으로 나누어 볼 때 6대도시에서는 감소하고 시지역에서는 증가하고 군지역에서는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은 6대도시로부터 기타 시지역으로 의원의 신규개설이 옮겨가면서 기타 시지역에 의원의 신규개설이 늘고 있지만 이 경향이 아직 군지역까지는 파급되지 않아 군지역에서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신규개설 의원 전체에서 기타 시지역의 점유율이 1981년의 4.8%에서 1990년에는 16.1%

로 증가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역별로 인구의 이동이 있을 수 있어 인구 100,000명당 신규개설 의원수를 살펴보았으나 모든 지역에서 인구당 신규개설 의원수가 늘어났다. 그러나 시지역에서는 1980년대 후반기에 그 증가가 6대도시나 군지역에 비하여 미미하여, 아직은 시지역에 의원이 신규개설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에 군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개설의원의 증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시지역에서의 신규개설이 힘들어져서 이미 군지역으로 의원의 신규개설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분석하여야만 정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겠다. 6대도시와 기타 시지역 모두에서 신규개설 의원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여 2배가 넘고 있는데, 6대도시에 신규개설하는 의원의 비중은 최근에 올수록 감소하지만 기타 시지역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올수록 신규의원개설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의사면허 및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후 바로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의사인력의 양산으로 인한 결과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의사수가 늘고 신규개설 의원수가 증가하면서 의원의 개설환경이 악화되어 의원을 개설할 경우 조기에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다.

의료보험이 도입된 1980년대 초기에는 전문의들이 자격을 취득한 전문과목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부응하려 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된 다음해인 1990년에는 1981년보다도 그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율이 낮아져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의료전달체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걱정스러운 점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적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의원의 신규개설자 중 일반의의 비율이 최근에

늘고 있는 것은 배출되는 의사수가 늘어나고 수련기회는 일정하여 수련기회를 갖지 못한 의사들이 바로 의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원 신규개설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의사면허 취득 후 바로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과는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0,000명당 의원을 신규개설하는 전문의가 6대도시, 시, 군의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6대도시에서 그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전문의들이 의원을 신규개설하는 장소를 6대도시에서 시로, 시에서 군으로 바꾸고 있는 경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대도시와 기타 시지역에서는 병상을 보유한 채 개설되는 의원이 과거보다 감소하여 의원의 신규개설자들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지역에서 병상이 증가하는 것은 환자들의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병상을 보유하고 개설되는 의원에서의 의원당 평균 병상치는 전지역에서 큰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여 병상을 보유하고 의원을 신규개설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의원의 규모를 과거보다 크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를 제외한 인력은 6대도시와 시에서는 일반의가 개설하는 의원에 의료기사와 원무요인이 전문의가 개설하는 의원보다 많아서 전문의들은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일반의들은 의료기사 및 원무요원도 일정수준 충원한 후 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의사인력 전체적으로 볼 때 의원당 인력의 평균치는 최근에 올수록 증가하고 있어 인력면에서도 의원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원당 장비의 평균치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장비면에서도 의원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군지역에서는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가 6대도시 및 기타 시지역보다 더 많은 장비를 갖추고 의원을 개설

하여 군지역의 병상수 평균치가 높은 것과 관련지어 볼때 군지역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기 때문에 의원에 대한 병상수가 클 수도 있겠고,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신규개설자가 환자를 후송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진료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점은 앞서도 명시한 것과 같이 동일한 신규개설자가 개설장소와 무관하게 개설일자를 달리하여 개설한 의원 모두를 각각의 신규개설 의원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 신규개설 의원인 경우는 개설자가 동일하고 개설일자 및 개설장소만이 다른 경우가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원개설자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롭게 의원을 개설한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나름의 동기부여가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여 의원을 신규로 개설하였을 것이다. 또한 신규개설 의원의 규모(병상의 보유여부 및 병상수, 종사하는 비의사인력, 장비수)면에서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신규개설자가 과거에 개설하였던 의원과 새롭게 개설한 의원을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하여야, 여러 변수에 따라 신규개설 의원이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를 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 결과에 충실하다고 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개인 명의로 신규개설된 의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공공 의료기관, 보건기관, 부속의원등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의료보험이 확장되면서 전국민의료보험과 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되던 1980년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했으므로 이들 제도가 의원의 신규개설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의료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시킨 이들 제도하에서 의원의 신규개설자들은 그 나름의 영향을 받아 그 결과가 의원 신규개설의 여러 양상의 변동으로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에, 특수 목적의 정책적인 의도하에서 개설된 공공의료기관, 보건기관, 부속의원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각 변수별로 신규

개설 의원의 10년간 변동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의료보험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과 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된 1980년대에 신규로 개설된 의원만을 대상으로 여러 변수별 변동만을 분석하였으므로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 중 몇가지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개설 의원이 개설 후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둘째, 전국민 의료보험과 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들 제도가 의원의 신규개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의원의 신규개설과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할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본다.

V. 결 론

저자들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전국에서 개인이 신규로 개설한 모든 의원 10,184개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확대되고 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된 1980년대에 의원의 신규개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지역별 분포, 신규개설자의 특성, 규모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당해년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신규개설 의원의 비중은 1986년의 13%까지 계속 증가하다 그 후 감소한 다음 1990년에 13%로 다시 증가하고, 10년간의 신규개설 의원 전체에 대한 매년도 신규개설 의원의 비는 최근에 들어올수록 높아져 1990년에 14.6%이지만 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올수록 신규로 개설되는 경우가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신규개설 의원의 수는 전체 의료기관수의 약 13%에 해당된다.

2. 지역별로 살펴보면 6대도시(특별시 및 직할시)에서 의원의 신규개설은 1981년의 58.4%에서 1990년의 49.0%로 감소하고, 시에서는 19.4%에서 31.0%로 증가하고 군지역은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6대도시 주위지역은 증가하고

있다.

3. 시·도별과 6대도시, 시, 군별로 모든 지역에서 인구 100,000명당 신규개설 의원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속도는 시지역에서 둔화되었다.

4.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인구증가율은 16.3%, 신규개설 의원의 증가율은 107.7%이었다. 시·도별로는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이, 6대도시, 시, 군별로는 시지역이 전국의 신규개설 의원의 증가율보다 높았다.

5. 젊은 연령층의 신규개설자가 늘고 있고, 성별로는 변화가 없으며, 전문의에서 취득한 전문과목과 표방하는 전문과목이 일치하는 경우가 최근에 들어 감소하고 있다.

6. 일반의는 최근에 올수록 의사면허 취득후 곧 의원을 개설하는 경향이 있고, 전문의는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고 바로 의원을 개설하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의원을 개설하는 두가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7. 신규개설자 중 전문의의 비중은 1980년대 초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하였다. 인구 100,000명당 의원개설수를 보면 일반의는 1985년에 감소하다가 1990년에 증가했고 전문의는 계속 증가했다. 인구증가율보다 전문의가 신규개설하는 의원의 증가율이 높았고, 일반의가 신규개설하는 의원도 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 증가율보다 높았다.

8. 신규개설 의원당 평균 병상수와 평균 인력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장비의 숫자는 계속 증가되어 왔다. 6대도시, 시지역에서는 일반의원, 전문의원 모두 의원을 신규개설시 병상을 보유하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으나 군지역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전문의원인 경우는 6대도시와 시지역에서 최근에 약 간씩 병상이 증가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고 군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다.

9. 신규개설 의원의 인력규모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즉 일반의원은 6대도시에서 의료기사가, 시

지역에서는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증가하고, 전문의원은 시지역에서 주로 의료기사가 증가하고 군지역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증가하고 있다.

10. 신규개설의원의 장비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일반의원과 전문의원 모두 군, 시, 6대도시의 순서로 장비가 많았고, 특히 군지역에서의 증가가 현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최근에 올수록 6대도시보다 시와 군지역에 의원이 새로 개설되는 경향이 있고, 젊은 연령층의 의사와 일반의들이 의원을 더 많이 개설하고 병상보유율은 감소하였으며, 신규개설 의원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일순, 유승흠. 전국의료망 편성을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 보건의료전달체계 모형개발.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1, p. 207
- 김한중. 의료시설의 수급과 정부의 역할. 대한병원 협회지 1991; 20(7, 8): 45-54
- 문옥륜, 박세택, 이재형, 조형원, 노운영, 우영국. 한국의료보험론. 서울, 신광출판사, 1990, p. 57-73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91; 제37호
- 보건사회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1990; p. 343-344
- 양봉민. 보건경제학원론. 서울, 수문사, 1989, p. 227-229
- 유승흠. 전국민의료보험 제도하에서 의료전달체계와 병원관리. 대학병원협회지 1988; 17(10): 34-40
- 의료보험관리공단. '90의료보험통계연보. 1991; 제12호
- 한달선. 의료전달체계의 발전을 위한 제언. 대한병원협회지 1984; 13(4): 6-10